

보 도 해 명 자 료 (‘19. 3. 26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정부가 저장시설 포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
사실과 다르며, 조만간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
논의착수 예정(조선일보 3.26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정부가 원전가동 중단 의도를 가지고 폐연료봉 저장시설 포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3월26일 조선일보 <정부, 폐연료봉 저장 시설 포화되길 기다리나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가동이 중단되는 걸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정부가 원전 가동중단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- ☐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임

※ 문의: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/엄재영 서기관 (044-203-5317)